이젠 2014 브라질 월드컵이다

대표팀 귀국 후 개편…내년 1월 아시안컵 첫 시험대

이운재·안정환·이동국 등 사실상 은퇴 수순

이청용·박주영 등 젊은피 주축 '새로운 도전' 시동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의 감격을 뒤로 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귀국하는 대로 허정무호의 월드컵 성적, 선수들의 활약 등을 평가하고 나서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 코칭스태프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정무 감독의 계약이 남아공 월드컵과 더불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개최될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대비해야 한다. 아시안컵을 대비한 본격적인 모의고사도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일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데이가 8월11일이기 때문에 아시안컵 본선 조 추첨에서 한국과 같은 C조(호주, 바레인, 인도)에 속하지 않는 팀과 올해에만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8월11일 A매치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공산이 크다. 다음 A매치인 9월7일에는 이란과 평가전이 잡혀 있다.

이어 10월12일에는 한일 교류전 성격으로 일본과 국내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대표팀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모여 1월7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컵 담금질에 들어간다.

아시안컵을 계기로 처음 시험대에 오를 대표팀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준비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대표팀에는 젊은 피들이 대거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호의 주축이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알 힐랄), 이운재(수원), 안정환(다롄 스더), 김남일(톰 톰스크), 이동국(전북) 등 30대 전후의 베테랑들이 남아공 월드컵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대 초반의 이청용(볼턴), 기성용(셀틱)은 물론 간판 골잡이로 자리를 잡은 박주영(AS모나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던 이승렬(FC서울), 김보경(오이타) 등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U-20 월드컵 8강 주역인 구자철과 같은 청소년 대표팀 멤버였던 박희성, 최성근(이사 고려대), 김민우(사간도스),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석현준 등도 기대주들이다. 지난해 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8강 진출의 주역인 '괴물 공격수' 이종호(광양제철고)도 브라질 월드컵 데뷔를 노린다.

/연합뉴스

■기록으로 본 '태극전사' 활약

이청용, 4경기에서 359분간 뛰며 43.62㎞ 질주 '두골 기록'

조용형·박지성·이영표·김정우·이정수·정성룡 풀타임 소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기록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청용(22·볼턴)이다.

이청용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와 B조 조별리그 2차전, 26일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한 골씩을 터뜨렸다. 중앙 수비수 이정수(30·가시마)와 함께 두 골을 기록해 대표팀 내 최다골 주인공이다.

이청용은 오른쪽 미드필더로서 4경기에서 359분을 뛰어 사실상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필드에서 뛰어다닌 거리는 무려 43.62㎞로 집계됐다. 이는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해 '산소탱크'로 불리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3.55㎞도 능가한다.

대표팀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는 중앙 수비수 조용형(27·제주)과 왼쪽 미드필더 박지성, 왼쪽 수비수 이영표(33·알 힐랄), 중앙 미드필더 김정우(28·광주 상무), 이정수, 골키퍼 정성룡(25·성남) 등이다.

풀타임을 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선수는 이청용과 박지성이었고, 김정우(42.39㎞), 이영표(40.58㎞)가 뒤를 이었다. 박주영(25·AS모나코)은 지난 23일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골을 터뜨려 이청용, 이정수와 함께 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주영은 지난 12일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자책골을 넣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이탈리아와 3차전(조광래)에 이어 한국 대표팀에서는 역대 두 번째 자살골을 기록했다.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과 공격수 염기훈(27·수원), 차두리(30·프라이부르크)는 주축으로 뛰었으나 전술에 따른 교체가 있었다. 기성용은 4경기 292분을 뛰었으며 전담 키커로서 그리스와 1차전,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서 골을 엮는 어시스트를 1개씩 배달했다.

염기훈은 4경기 249분을 소화하면서 슈팅은 외곽슛 2개, 페널티지역 내 1개 등 3개였고 유효슈팅은 1차례로 집계됐다. 차두리는 3경기에서 전후반 전부인 270분 동안 31.5㎞를 뛰었다.

골키퍼 정성룡은 조별리그 그리스와 1차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4골,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서 2골,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2골 등 모두 8실점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검도 우승 회장기, 영동대 꺾고 3년만에 정상 복귀

조선대가 제 9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27일 초당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영동대를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이후 3년만에 대회 정상 복귀다.

이날 결승에서 조선대 선봉 정현교가 0-1로 졌지만 김대성·김승현이 각각 2-0과 1-0으로 이기며 승부를 끌어나갔다. 중견 김민재의 패배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부장전에서 우재동이 1-0으로 이긴 뒤 마지막 주장전에서 강성민이 0-0 무승부를 이끌며 3-2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현준 감독은 전국 대학 OB대항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지휘,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

활약상 따라 '빅리그'에서 입질

'국내파' 조용형·정성룡, 해외 이적 절호의 기회

'쌍용' 이청용 리버풀서, 기성용은 터키서 관심

'해외파' 이정수·박주영,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시화

■'태극전사' 향후 진로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통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태극전사들은 최고 1억 7천만원의 포상금뿐 아니라 해외리그 진출과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을 절호의 기회도 맞았다.

현재 23명의 태극전사 가운데 해외파는 총 10명이다.

국내파 선수 가운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정성룡(성남)과 조용형(제주)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도 잡을 전망이다.

이미 조용형은 잉글랜드 2-3개의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상태다.

최근 영국 언론은 "뉴캐슬이 조용형을 눈여겨보고 있다.

더불어 풀럼도 조용형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형은 이번 월드컵에서 이정수(가시마)와 함께 센터백을 맡아 안정적인 수비로 16강 진출의 숨은 조력자로 인정받았다.

이운재(수원)를 대신해 '넘버 1' 골키퍼로 나선 정성룡 역시 눈부신 선방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대표팀의 차세대 주전 골키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성룡 역시 해외 이적의 장밋빛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수비수로서 2골을 몰아친 이정수는 J-리그를 넘어서 빅클럽으로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튼튼한 수비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력까지 갖춘 이정수는 '골 넣는 수비수'로 통하면서 몸값을 올리게 됐다.

특히 박주영(AS모나코)의 빅리그 이적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난 시즌 프랑스리그에서 9골을 뽑아냈던 박주영은 풀럼과 에버턴, 애스턴빌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기막힌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주목을 받은 박주영의 프리미어리그 이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쌍용' 이청용(볼턴)은 리버풀의 입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성용(셀틱)은 터키의 트라브존스포르가 관심을 보이는 상태다.

/연합뉴스

이청용 동점골 작렬 27일 새벽(한국시간) 포트엘리자베스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16강 한국-우루과이 경기에서 이청용이 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